

익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선정

국토부 공모 국·도비 등 총 309억원 확보

익산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KTX 익산역 서편인 송학동 일원과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지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 309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85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93억원 총 3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 일원 등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이후 서편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와 해당 사업지역 주민들의 추진의지 등의 최종평가를 거쳐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 일원과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지역 등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공모 준비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역구 이춘석 국회의원과 김대오 도의원 등과 함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제안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 일원에 대해 총 167억원을 들여 LH와 사업을 공동 추진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 확충, 공동체사업 기반 조성 및 LH 행복주택과 어르신을 위한 실버안심 주택 건설 등을 통해 낙후된 마을 살리기에 나선다.

또한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지역은 총 142억원을 들여 송리마을 노후집포 리모델링을 비롯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근대역사 재현하기 등 주민역량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자산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역점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SOC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

에 선정된 2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심한 곳으로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오랫동안 함께 준비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편적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7년 KTX 익산역 앞 중앙동 일원이 중심시가지 유형으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2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아이들 뛰어 놀' 농촌체험관광 구축

생태동물체험관·식물학습원·농경체험장 등 조성

익산 서동농촌테마공원의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서동 농촌테마공원 27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기능보강 사업이 오는 12월이면 대부분 마무리된다.

우선 유아와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생태동물체험관이 지난 6월 완공됐다. 체험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경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과 전통농촌 초가집 등이 올 연말까지 증축되며 예산 15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 식물학습원 체험장도 내년 연말까지 조성된다.

이곳에는 식물체험관과 야외체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난 9월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유아 놀이시설과 다목적 등을 포함한 체험시설 조성을 완료했으며 농경 전시관과 야외무대, 체험부스 등을 설치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비 확보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발전종합계획 국비 175억을 확보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및 산북중학교~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사업 등 17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발전종합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 요구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변경(안)을 신청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협의해 2건의 신규 사업이 선정됐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미군 비행장의 소음, 분진, 등 피해로 인해 소외된 옥서면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을 정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동동에서 옥서면 미군비행장 일원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도로정비, 도시가스 매설 등 가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하고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북중학교~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사업은 산단근로자 출퇴근 교통 편의제공 등 산업단지 진입여건

을 개선하고 도심지 도로 접근성 향상 및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산북중학교에서 나운동 리츠프라자호텔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도로연장 1km, 폭 15~23m 까지 도로확장과 터널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 착수하여 2022년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입준 군산시장은 "이번 신규사업 선정은 우리시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등을 발생시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며, "또한 해당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 보리 진포 동네빵집 살리기 나서

군산시가 활활살보리빵 전문점 보리진포 동네빵집 살리기 프로젝트 재시도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 서고 있다.

10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군산시가 대한제국회 협회 군산시지부(홍동수지부장)와 활활살보리빵을 상품화해서 23개소 동네빵집들을 문치게 했던 동네빵집 살리기 프로젝트 보리진포는 지역의 영세한 동네빵집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시설확장 등 눈에 띄는 성과로 영국빵집을 비롯한 군산 대표빵집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보리진포전문점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5회에 걸쳐 기존 활활살보리빵 품질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활활살보리 대표빵인 보리만주와 단팥빵 표준 레시피 보급과 신제품 생산체계를 갖추고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지 지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군산 대표 관광상품인 활활살보리빵 신제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보리진포 전문점에 부착된 낡은 보리진포 간판 디자인을 개선하고 활활살보리빵의 우수성과 동네빵집들만의 이야기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빵집 대표들의 서비스 개선으로 보리진포의 재도약 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병래 소장은 "동네빵집이 지역의 농산물 홍보와 농가의 소비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홍보 마케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10일 군산시는 지켜온 것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군산 전통명가' 11개 업체를 선정하고 인증서 교부식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 전통명가 11개 업체 인증서 교부

도소매·음식업종 30년 이상 사업 운영 성장 지원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지역업체들이 속출하는 요즘이라지만 조금만 뒤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한우를 장수하게 했다.

이와 관련 10일 군산시는 지켜온 것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군산 전통명가' 11개 업체를 선정하고 인증서 교부식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 전통명가는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업체의 차별화된 특색을 발굴 육성해 추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

다. 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1차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 전통명가 11곳은 ▲국일식당, ▲대영장식지물총관, ▲맷방방식당, ▲몽실정, ▲삼해건어물집판장, ▲서울누비, ▲이삭의상실, ▲일도당인쇄(명예 전통명가), ▲장미칼국수, ▲전주우족살림탕, ▲정원사 등이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6, 음식점 5개소이다. *업체명(가나다순)

시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 '군산 전통명가' 인증현관을 만들어 주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1:1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 시설개선(업체당 7백만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오산면 장신지구 휴먼시아 1단지 내에 마련

익산시는 10일 오산면 장신지구 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오픈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정현을 익산시장장을 비롯한 시의원, 신한희망재단 관계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LH전북지역 관계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휴먼시아단지 관리사무장, 14개 시군구 센터장, 통합센터운영위원,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신한희망재단이 함께하는 희망사회프로젝트 공동육아나눔터 구축사업인 신한 꿈도담터(47호점)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시는 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2층 일부에 대해 LH주택공사 전북지부와 20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으로 새 단장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